2020년 제13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3. 20. ~ 3. 2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3. 21.	시청률	0.008

【총 평】

성인 국민 대다수가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대국민 소통 법률 라이브쇼 <밥보다 법> 제3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을 비롯해 뺑소니 교통사고 기준,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 등 교통사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운전 중 사고를 낸을 때 대처가 쉽지 않은 '물적 피해 뺑소니'와 '과실비율 산정에 따른 배상 기준' 등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고 특히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구호조치'와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해 상식의 깊이를 더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는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교통사고의 특성을 잘 대변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스쿨존과 관련한 '민식이법'에선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윤창호법'에선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와 낮아진 혈중알콜농도를 언급했는데 둘 다 메시지가 분명하게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밥보다 법 3회에서는 '교통사고, 몸도 마음도 답답해요'라는 내용으로 자동차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야 할 교통사고 생활법률을 다루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부터 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의 기준부터 최근 주요 교통법률 이슈인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경종을 알려주었다. 또한 접촉사고시 대처요령과 종합보험 가입 필요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교통사고 분쟁시 꼭 알아야할 점을 주지시켜 유익한 정보제공을 한 기획도 돋보였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법률 드라마로 재연한 사연은 도로 3차선으로 정상주행 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직진차량이 과실비율이 적다. 다만 차선변경을 알렸을 경우에는 끼어드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줄어들고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차량을 손상시킨 후 도주 시, 물피 뺑소니 처벌 가능하며, 뺑소니는 사고 시 피해자나 상해, 사망을 입었을 경우에 가해자가 도주했을 때 성립하며 가해자의 구호조치 인정여부 또한 주요 쟁점이다.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합의 이후 손해를 당시에 예측하기 어렵고 인지하지 못했던 피해사실일 경우 추가 합병증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차 적발 시 음주 수치 관계없이 가장 무거운 형을 처벌했으나 윤창호 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3. 21.	시청률	0.152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4회는 한 박자 더디게 찾아오는 강원도 산골짜기 속 양양의 봄 풍경소리를 설치미술가와 함께 둘러보는 시간으로 '양양의 봄, 춘산에 살어리랏다'를 방송하였다. 강원도 백두대간 산골의 아름다운 절경과 봄이 오는 소리를 담아 전했는데, 더디게 찾아오는 강원도 양양 산골짜기의 또 다른 봄 풍경을 감각적으로 보여줘 인상적이었다. 산골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노부부의 삶과 고즈넉한 산사에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참선의 시간을 전했는데,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해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의 전령사들이 피어나고 계곡의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설악산 줄기의 양양의 봄을 소개했다. 특히, 백두대간의 줄기를 이루는 강원도 명산들의 봄이 오는 소리를 소박하고 잔잔한 감동으로 들려주었다. 강원도 산과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절경을 그림처럼 담아 이목을 끌었다. 양양에 터를 잡고 백두대간 산자락을 오르며 약초를 캐다 정성껏 손질해 시장에 내다파는 노부부의 소박한 삶을 진솔하게 담아 전했다.

■ 양양 심마니 부부

백두대간을 오르며 약초를 캐면서 생활하는 잉꼬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남편이 버섯을 따서 던지면 아내가 밑에서 받았는데, 아찔한 모습이긴 했지만 버섯을 따는 장면을 비교적 잘 담아냈고 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한 뒤에는 꼭 그 효능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정보가 되었다.

특히, 험한 산세를 누비며 쌓아온 두터운 부부의 정, 산을 오르며 상황버섯, 더덕을 채취하는 노련한 모습과 심마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는 산의 넉넉함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

■ 용화사 법성 스님

고즈넉한 산속, 풍경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작은 절 용화사의 봄맞이 풍경과 시냇가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수양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 전했는데, 마음이 정화되고 머릿속이 맑아짐을 함께 느꼈다. 혼자 수행하는 법성스님의 일상이 소개되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했다.

■ 토종닭 약초 백숙

산에서 직접 채취한 약초를 이용해 만든 토종닭 약초 백숙으로 산행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속 음식점의 진귀한 밥상을 소개했는데, 봄철 허해진 기운을 되찾아주는 건강식이 매우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22.	시청률	0.030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25회 '내 남편은 갱년기 극복중'은 풍악놀이꾼인 남편이 흙집 건축가가 돼 농촌에서 봉사하며 갱년기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귀농다큐였다.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전북 순창군으로 귀촌한지 7년차가 되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뤘다. 잃었던 삶의 의욕을 귀촌에서 찾았다는 부부는 건축사무소를 열고 마을에 휴식시설을 만들고 공방과 청년용 주거공간을 마련해 귀촌자 정착을 도우며, 아들에게 생태건축 기술을 전수하고 암벽등반과 가족캠핑으로 재충전하며 갱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잔잔하게 펼쳐져 마음의 치유와 감동을 선사했다.

귀농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사례 소개가 아닌, 부부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마을 봉사를 하며 인생철학과 건축철학을 피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풍악놀이꾼인 남편이 사철가를 부르고 부인이 추임새를 붙이는 모습에서 부창부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부부애가 결국 갱년기 증후군을 치유한다는 점을 보여준 구성이 호감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어느 풍물꾼의 인생 2막 이야기로 농촌에서 마을 주민에 대한 봉사, 귀촌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유주택 제공, 공방과 방아실 운영, 업사이클링 생태 건축 추진 사례 등 희망의 메시지가 소개됐다. 2013년 순창으로 귀촌한 부부가 낡은 농산물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건축사무소에서 아내는 설계담당, 남편은 건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재능기부로 마을을 꾸미는데 관심이 많다. 아내는 밤이면 설계 업무에 집중을 하며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며 아내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아내는 한옥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순창의 젊은이들이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골목을 조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남편은 갱년기 극복을 위해 암벽 전문가 친구와 함께 암벽 코스를 개발하여 즐기며, 캠핑을 통해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암벽 등반하는 그 과정이 행복이죠", "거스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야죠"라며 인생철학과 건축철학을 피력하는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부부가 서로 주춧돌이 되어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염원하는 메시지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소소하지만 울림이 있는 삶의 면면이 주는 느낌이 적지 않았고, 산을 타면서 그것을 공부라고 하는 말에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잘 드러났다. "두 부부의 욕심은 돈이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내레이션에서 이야기의 핵심을 잘 짚어냈다고 생각한다. 또, 전북 순창군 동계면 농촌의 일몰, 농촌의 여유있는 풍경, 암벽 등반, 가족 캠핑, 아내를 위한 세레나데 등을 담은 화면도 귀농다큐의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내레이터의 구수하고 텁텁한 내레이션이 흙집 건축가가 된 풍악놀이꾼 부부의 꾸밈없는 농촌 생활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담아냈다.

프로그램	웹툰다큐 멋찐 공무원		
방송일자	2020. 3. 22.	시청률	0.010

【총 평】

<웹툰다큐 멋찐 공무원> 제3회 매의 눈으로 지킨다 제2부는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뜬눈으로 밤샘근무를 하고 고생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실 공무원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2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고, 새삼 이들의 노고를 실감나게 하는 장면이 많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법원의 명령이 무엇인지 충분히 전달하였고 관제실 근무의 긴박함을 생생히 전하였다. 전체적으로 전자발찌 시스템과 관제 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시청하는 입장에서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 생활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리없이 맡은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업무 현장을 소개해 깊은 공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부터 야간 업무, 귀가 후 일상적인 모습까지 두루 담아냈고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이루어지는 업무까지 직접 촬영하여 현장감을 유도했다. 특히,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를 직접 만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귀가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촬영해 몰입감을 높였다. 비록 범죄자들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참신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범죄없는 세상을 위한 안전함과 치안유지가 남모르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더해져서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수화기 넘어로 들려오는 욕설, 야근후 미행에 대한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직업적 소명의식 없이는 견디기 힘든 업무의 특성임에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공무원의 모습을 전달하였다.

■ 고위험군 집중관제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제 업무와 관련해 새롭게 개발된 기기의 성능을 실험하는 내용은 기기에 대한 정보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집중관찰업무에서 CCTV의 역할이 크게 강조가 되었고 새로운 기기도 그 기능이 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이해를 도와주었다. 새로운 시스템과 기기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의 모습과 정부의 시책이 크게 부각되었다. 피해자 보호방식의 새로운 변화라고 제목이 붙여져 시사하는 바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재범률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3. 24.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및 미주 등 각국에서는 주민의 이동제한과 출입국 제한, 여행 금지, 도시 셧다운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증시는 물론 국내 외환시장의 충격으로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 방송은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하여 통화스와프의 개념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배경 등과 더불어 그 외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 문제를 두루 살펴보았다.

【구성 및 내용】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그 개념에서부터 꼭 알아야할 상식까지 더했는데 경제학습프로그램으로서 좋은 구성이었다. 또, 통화스와프가 현재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기간이나 규모도 커져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지적이었다.

- 코로나19 현황

  전 세계 확진자가 32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사람들의 이동제한과 더불어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의료역량에 국가의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인공호흡기 등 의료 방역 물품으로의 생산체제 전환으로 코로나19 지원에 나서고 있다.

- 한미 통화스와프

  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 중앙은행이 이번에 체결한 6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달러화 수급 불균형 해소와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좀 더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영향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 메르스 사례를 상기하면 음식숙박, 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 산업 지원보다 타격을 입은 특정 업체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2차 추경이 필요하며, 재난기본소득 관련 자영업자는 현금지원이 필요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간접적 세율 조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사항】

24:30 도쿄올림픽 연기가능성과 전망을 얘기하면서 “도쿄올림픽, 완전한 형태 곤란하면 연기 판단”이라는 자막에서 “연기 판단”은 “연기 고려”가 좋았을 것 같다

프로그램	힘내라 대한민국 4부		
방송일자	2020. 3. 24.	시청률	0.120

【총 평】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자 연속으로 마련하고 있는 특별 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은 국난극복 메시지와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안정감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통합을 이끈다는 점에서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한국 방역의 우수성을 알린 관련 외신보도를 짚어보며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위기 속 피어나는 미담을 소개하는 다양한 구성이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4월6일 개학 가능한가? 가을철 감염 악화 우려? 백신 1년 기다려야 하나? 요동치는 증시의 원인은? 등 국민관심사를 전문가로부터 명쾌하게 풀어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최대환 진행자는 '못된 코로나19를 이기는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 '대구와 광주의 달빛 동맹', '선한 영향력' 등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명불허전 실력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특별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 4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방역 상황, 정부 발표 내용, 코로나19 핵심 뉴스 중 내용 점검,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 팩트 체크, 한국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 시각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의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구성이 돋보였고, 주요 이슈를 전문가로부터 명쾌하게 풀어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밝혀내 사회혼란을 최소화한 점도 우수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문제 극복 방안을 다룬 점도 치유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떠돌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전문가의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임을 명쾌하게 밝혀냈다. 메탄올 소독의 방역효과, 감염병 100년 주기설 등이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공직사회 봉급 반납 동참 릴레이, 달빛 동맹 광주 희망트럭 등 코로나19 위기 속 피어나는 미담이 이목을 끌었다.

외신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적 대처에 찬사를 보내고 이탈리아는 한국의 대응 모델 연구 스터디그룹을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부정적 보도를 비판한 점은 적절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낙인찍고 탓하는 분위기를 벗어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뭉쳐나갈 때 희망과 긍정의 심리적 방역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의료인 패널의 조언이 공감을 얻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교수의 정책적 제언은 정책당국이 수용할 만한 전문성 높은 소견이었다. 역학조사반 확충과 방역정책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중앙과 지자체의 의료 체계 연계성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됐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25.	시청률	0.010

【총 평】

<국민리포트>는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성으로 “우리는 한숨만 늘어요”와 “호주국경 폐쇄, 한글학교 문 닫는다”를 연속 방송돼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 현장실습과 대면강의를 받을 수 없어 울상인 대학가의 표정과 호주국경이 폐쇄돼 한글학교도 문을 닫았다는 글로벌 리포트가 보도의 속보성과 현장성을 높인 살아있는 기획이었다. 특히, 문제제기성 리포트가 공감을 얻었다. 현장실습과 대면 강의가 필수인 예능계 대학생과 의학계열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나온 사이버 강의도 영상과 음질이 불량해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학생들이 등록금과 실습비 재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깊이있게 들여다본 취재력이 돋보였다.

연중기획 <국민영상편지>에서는 전국 명당찾기에 나선 아버지의 유품으로 ‘만산도’ 책자를 발간한 아들의 사부곡이 영상 편지 형식으로 방송돼 아버지의 집념과 유훈을 받드는 아들의 절절한 효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마무리 부분에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킨 부분도 좋은 구성이었다.

【구성 및 내용】

■ 현장실습·대면강의 필수 대학생들 ‘울상’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의 ‘재택수업’이 연장되면서 현장 실습과 대면 강의가 필수인 의학 계열 및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고충을 밀도 있게 담아 전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습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된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각 대학들도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임을 드러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는 기회였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호주 국경폐쇄, 국내 이동제한 권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호주 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전달했다. 한국어 학교 운영 중단, 빅토리아주 모든 학교의 조기 방학, 한국행 모든 직항 노선 운항 중단 등 호주도 긴장 상태임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호주에서도 사재기가 심각한 실태를 전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 열대작물 재배지 북상...청주에 바나나 ‘쑥쑥’

아열대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열대작물 재배 품종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설명해 특색 있었다.

■ 열정으로 살아가셨던 아버지를 기억하며...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평생 전국의 명당을 돌며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을 ‘만산도’ 책자로 만들어낸 아들의 편지를 영상에 담아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3. 26.	시청률	0.090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내 방역 현장을 담았다. 지난 회에는 선별진료소와 마스크 구매 등 초기 대응 체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번 방송에서는 방역현장의 체계적인 모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여행 제한 등 국민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한 관심과 위기상황에 돋보이는 국민들의 의식도 외신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빈틈없는 방역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소,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 학원 등에서 이뤄지는 방역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담았다. 특히, 많은 사람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버스터미널, 역사,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힘쓰는 현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출해 냈다.

【구성 및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역 대책임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환기시킨 의미있는 방송으로 지자체의 한 관계자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지역에서 종결시킨다"라고 한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함축한 내용이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소 방역

대전시내 전통시장을 돌면서 방역하는 모습과 이에 고마움을 전달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초미립자 살균소독을 활용하고 있으며 방역시간은 시장 및 상가이용시간을 감안하여 밤낮없이 작업하고 있다. 방역 소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 대전 터미널과 택시, 버스업계 방역 실태

대전 터미널 내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방역 현장과 기사분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90개 노선 대상 일일 횟수 1100회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대전 터미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빈틈없는 소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합실, 차량별 일일 1회 이상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이들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안전을 위해 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실태를 취재하고 개학 이후에 예상되는 방역 시스템을 점검해 보았다. 잠정 휴업 중인 학원이 개원했을 경우 자체 방역매뉴얼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안내했는데 유용한 정보였다.